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원철성	면담자	조연희		
면담장소	대우공예	면담지원	학산문화원 양지원		
면담 일시	2022년 8월 30일	회차	1	시간	3시간19분50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92				
구술 개요	인천 영종도에서 태어남, 큰아버지 사돈이 공예일을 하는 데를 따라갔다가 신기해서 배우게 되었음, 79년도에 대우공예사를 시작, 요즘은 야구방망이, 지압봉, 가구다리 등을 만들, 처음 배운 게 로구로였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음, 옛날엔 잘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음.				
주요 색인어	영종도, 국민학교, 송림동, 공예, 기술, 왕십리, 사돈 아저씨, 스카시, 일본, 자격증, 강의, 가구, 공장, 서진 피아노, 대우공예사, 목공예, 다리, 야구 글러브, 지압, 나무, 소나무, 건조, 야구, 탄력, 야구 방망이, 수급, 공예사, 로그로, 중국산, 수입, 인테리어, 제재, 동생들, 꿀꿀이, 결혼, 마디카레 나무, 회사, 반자동, imf, 학교 공사, 직업병, 먼지, 활성화, 젊은 사람들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고향, 목공을 시작하게 된 계기			00:00:00~ 00:19:08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50년생, 인천 영종도에서 태어남. - 7살에 인천 화수동에서 살다가, 송림동으로 이사함. - 큰아버지 사돈이 공예일을 하는 데를 따라갔다가 신기해서 배우게 되었음.					
2. 목공예마을			00:19:09~ 00:33:58		
- 2016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강의를 했음. - 목공예 사장님들과 크게 공장을 만들려했지만 쉽지 않았음. - 후배의 권유로 서진 피아노에서 5-6년 일을 하고 79년도에 나옴. - 대우 하청으로 일하면서 ‘대우공예사’가 되었음. - 79년도에 대우공예사를 시작하였음. 40년 정도 되었음.					
3. 만드는 제품			00:33:59~ 00:43:36		
- 방직공장 실패를 만드는 일을 했었음. - 요즘은 야구방망이, 지압봉, 가구다리 등을 만들. - 지압봉은 단단한 박달나무를 사용.					
4. 사용하는 나무			00:43:37~ 00:48:03		
- 나무의 종류는 뉴송, 미송, 소송, 소나무. - 우리나라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보급이 잘 안되서 외국산을					

사용함.		
5. 야구		
- 야구배트를 만들 때 선수에 맞게 제작. - 야구를 좋아함. - 야구배트를 만들어줬던 선수들. - 좋은 나무를 사용하면 배트가 탄력이 있음. - 요즘은 기계화 된 곳에서 만드는 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옴. - 나무는 재조사를 하는 친구에게 수급함.	[음성1] 00:48:04~ [음성2] 00:03:15	
6. 대우공예사를 하기까지		
- 벽시계 회사에 다니다 삼익가구를 다님. 그다음 원진공예사. - ‘원진공예사’ 이후 다시 삼익가구를 갔다가 ‘대우공예사’를 하게 되었음. - 처음 배운 게 로구로였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음. - 소파 다리, 계단 기둥을 만들곤 했음.	00:03:16~ 00:13:06	
7. 나무		
- 국산은 비싸서 수입산을 씀. - 건조하는 게 시간이 오래걸리고 쉽지 않음. - 목공인이 부족한 것보다 나무 수급이 시급함. - 옛날엔 가좌동이 제재단지였음. 또, 송림동 로타리쪽에도 제재소가 많았음.	00:13:07~ 00:29:14	
8. 어린시절 & 결혼 이야기		
- 옛날에는 창녕동에서 꿀꿀이 죽을 사다가 먹었음. - 결혼 후 신혼여행을 한국민속촌으로 갔던 이야기. - 마디카레 나무 냄새로 인한 해프닝.	00:29:15~ 00:53:46	
9. 과거 목공 업계		
- 옛날엔 좋은 나무들이 많았음. - 회사와 개인이 작업하는 과정이 다름. - IMF 이후로 중국, 일본시장에 밀리게 되었음. - 목공 작업과 학교 공사도 같이 했음. - 요즘은 나무와 비슷한 플라스틱이 나옴.	00:53:47~ 01:20:44	
10. 송의 목공예마을		
- 하나둘씩 그만두는 가게들이 생김. - 옛날엔 일이 많고 잘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배우려는 사람이 없음. - 목공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 - 직업병은 관절이 안좋은 것. -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음.	01:20:45~ 02:10:03	